

- 주요 뉴스: 5월 FOMC, 금리 동결 관세 영향 명확해질 때까지 현 금리 수준 유지할 방침
 - 미국, 중국과의 대화를 위한 관세 인하에 부정적. 對中 무역협상은 이제부터 시작
 - 미국과 영국, 자동차 및 철강 부문에서 관세 인하 포함한 무역협정 체결에 근접
 - 중국 인민은행, 자금준비를 인하. 대규모 유동성 공급 확대 및 내수 회복이 목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5월 FOMC, 美中 무역협상 기대 등이 영향
 - 주가 상승[+0.4%], 달러화 강세[+0.6%], 금리 하락[-3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장중에 일시 하락했으나 AI칩 규제완화 예고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제약사 Novo Nordisk의 실적 전망 하향 등으로 0.5%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금리인하 전망 후퇴, 美中 무역 갈등 완화 가능성 등이 원인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6%, 1.0%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5월 FOMC에서의 경제 불확실성 부각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6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395.9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98.7원, 0.05% 상승). 한국 CDS 강보합

		5/7일	5/6일	전일대비			5/7일	5/6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631.3	5,606.9	+0.43%	국채 금리 10y	미국	4.27%	4.29%	-3bp
	유럽	533.47	536.35	-0.54%		독일	2.48%	2.54%	-6bp
	중국	3,342.7	3,316.1	+0.80%		영국	4.46%	4.51%	-5bp
	일본	36,780	휴장	-0.14%	CDS 5y	한국	31bp	31bp	+0bp
	한국	2,573.8	휴장	+0.55%		중국	60bp	61bp	-1bp
	달러지수	99.83	99.24	+0.59%	위험 지표	EMBI+	-	406	-
환율	유로화	1.1301	1.1370	-0.61%		VIX	23.55	24.76	-4.89%
	엔화	143.83	142.45	-0.96%		WTI유	58.07	59.09	-1.73%
	위안화	7.2275	7.2190	-0.12%	원자재	구리	461.7	473.5	-2.50%
	원화	1,398.0	휴장	+0.52%		금	3,364.5	3,431.8	-1.9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5월 FOMC, 금리 동결. 관세 영향 명확해질 때까지 현 금리 수준 유지할 방침

- 연준은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4.25~4.50%)하기로 결정. 성명서를 통해 경제 전망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특히 실업 증가 및 물가 상승의 위험이 높아졌다고 설명. 수출입 지표에 다소 큰 폭의 변동이 있었으나, 지표들은 대체로 경제가 견조한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고 평가
- 아울러 2%의 장기 인플레이션과 최대 고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 또한 양적긴축을 지속하는 가운데 향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검토하여 추가 조치의 시기 혹은 강도를 고려할 것이라고 제시
- 한편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대체로 미국 경제가 양호하지만, 관세 영향으로 최대 고용과 2% 인플레이션 달성이라는 양대 책무가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발언. 다만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상황이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관망의 자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의사도 피력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금리인하 요구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선제 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이전과 경제 여건이 다르며, 더 많은 데이터를 보기 전까지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혀 해당 사안에 다소 부정적임을 시사
- 시장에서는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노동시장에서 의미 있는 수준의 하강 증거가 있어야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Bankrate). CME의 FedWatch는 금년 3회(7, 9, 10월. 각 0.25%p)의 금리인하를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중국과의 대화를 위한 관세 인하에 부정적. 對中 무역협상은 이제부터 시작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좀 더 실질적인 무역 대화를 갖기 위해 관세를 낮출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 아울러 매년 무역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번 주 예정된 중국 측과의 만남은 '협상'이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 미국 무역대표부의 그리어 대표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미국 상무부, 바이든 정부에서 마련한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 폐기

- 상무부는 바이든 정부에서 마련했던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국가별 동맹 수준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이 관료적이고 복잡하기에 이를 철회하고, 다른 정책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발표
- 한편 밴스 부통령은 EU와 무역 관련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양측의 통상관계 개선을 위해 무역장벽을 낮추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발언. 아울러 양측의 방위 관계에 대해서는 '같은 팀'에 속해 있다고 평가

■ EU, 연말부터 러시아産 가스 수입 중단 추진. '27년까지 러시아産 에너지 퇴출

-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리파워(REPower) EU' 로드맵을 발표. 이에 따르면, 금년 말부터 모든 러시아산 가스 수입 신규 계약을 금지하고, 늦어도 '27년까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완전 중단할 방침

■ 미국과 영국, 자동차 및 철강 부문에서 관세 인하 포함한 무역협정 체결에 근접

- 한편 FT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자동차 및 철강 관련 관세 합의에 근접. 구체적으로 영국은 미국産 자동차 및 농산물 관세 인하와 디지털세 감면을 제공하고, 미국은 영국産 철강 및 자동차의 일정 할당량에 관세를 감면할 전망

■ 중국 인민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대규모 유동성 공급 확대 및 내수 회복이 목적

- 인민은행의 판궁성 총재는 지급준비율을 0.5%p 낮춰 시장에 1조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 또한 정책금리 역할을 하는 7일물 역레포 금리와 대출우대금리(LPR)도 각각 0.1%p 낮아질 것이며, 첫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부동산 대출금리도 낮출 계획
- 이번 조치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통한 내수 부양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對중국 무역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평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5/8 현지시각 기준)

- 미국 5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3월 도매재고
-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 독일 3월 산업생산, 일본 금융정책회의 의사록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경제 전망, 4개의 시나리오 중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장 유력 - Financial Times

(Where will the US economy be at year end?)

- 연말 경제 전망은 A(적정 성장), B(과열), C(침체), D(스태그플레이션) 등 4개 시나리오로 구분. 2월까지의 B가 유력했으나 최근에는 D가 가장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내구재 구매 위축, 중국과의 무역 둔화 등 경기 하강 신호가 이미 나타나는 가운데, 고소득층의 양호한 재정 상태로 고물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연준은 경기 둔화에도 고물가로 금리인하가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재정정책이 유일한 대응 수단이며 관세 인하 외에는 해결책이 제한적. 트럼프는 적은 수준의 재정지출을 계획하지만 경기 둔화 심화 시 확대할 가능성

■ 美中 무역협상 개최 예정, 관세 인하 가능성은 있으나 긴장은 지속될 소지 - The Economist

(America and China prepare for an Alpine trade clash)

- 금주 미국과 중국은 고위급 무역회담을 진행할 예정. 현재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 대해 각각 145%와 1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보복성으로 부과된 측면을 제외하여 양측이 약 90%p 수준의 관세 인하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핵심 무역 현안(중국의 산업정책, 국영기업의 과도한 역할, 지적재산권 적용, 엄격한 데이터법 등)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 트럼프 1기 당시 체결된 1단계 합의는 미국 측 우려사항의 일부만을 다루고 있으며, 남은 쟁점을 처리할 2단계 합의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 결과적으로 이번 회담은 갈등의 일부 완화 수준에서 마무리될 전망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부흥 전략, 바이든의 접근 방식을 답습 - 블룸버그

(Trump is repeating Biden's economic mess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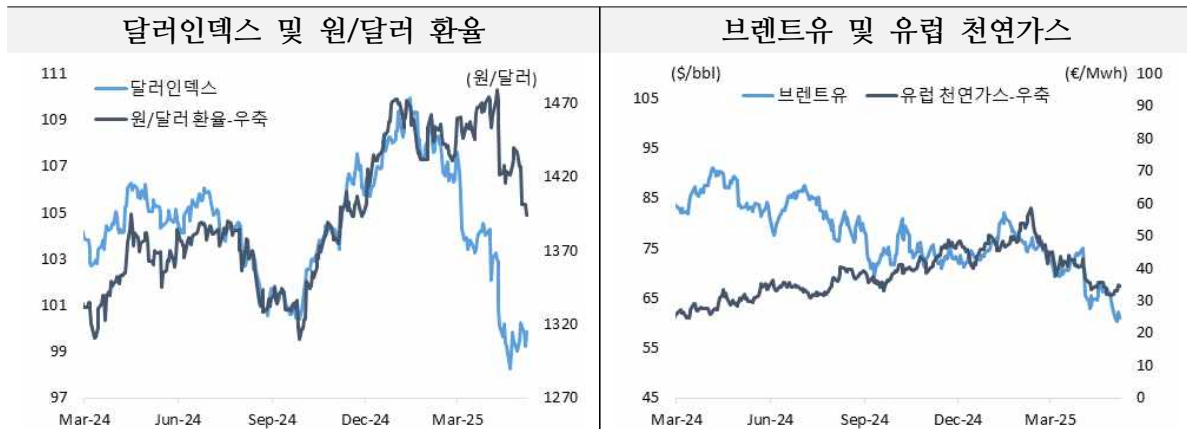
-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을 통한 제조업 투자 유치를 우선시하고 있는데, 이는 바이든의 제조업 부흥 전략과 유사. 그러나 과거 바이든 시기에도 증명되었듯 다수의 국민은 고용 창출 보다 물가 안정에 더욱 민감. 조사에 따르면, 물가 상승을 감수하면서 고용 확대를 위한 관세 인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5%에 불과
- 또한 관세를 통한 제조업 일자리 창출 효과도 과장되었을 가능성. 가장 낙관적인 전망에서도 신규 일자리 창출은 100만개인데, 이는 전체 시장의 극히 일부에 불과. 아울러 공급망 혼란과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실제 효과는 제한될 소지. 트럼프는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물가 안정 여부에 따라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

- **유럽계 기업, 유로화 강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 등으로 경고 신호 발신 - Financial Times**
(European companies sound alarm over strong euro)
 - 올해 유로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9%이상 올라 3년 만에 최고치. 이는 역내 주요국의 수출제품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상품 경쟁력을 저하시켜 관련 기업의 매출과 수익에 상당한 타격. 아울러 트럼프 무역전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미국 소비자의 지출 감소 징후도 유럽계 수출 기업에 부정적 영향
 - 한편, 유럽계 기업의 연간 매출은 유로-달러 환율이 0.01상승할(유로화 강세) 때마다 3,000만 유로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SAP). 이에, FTSE 유럽지수에 포함된 기업의 올해 이익 증가율 예측치는 2.9%로 하향(HSBC). 또한, 독일 부양책 등으로 인한 유로화 추가 강세 전망은 관세 충격에 더해 유럽계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
- **미국 트럼프의 중국 대응 방식, 세계무역 파괴보다 동맹국 위주 재편이 적절 - WSJ**
(Trump Still Has a Chance to Remake Rather Than Wreck Global Trade)
- **미국 증시, 기업실적 둔화 전망·무역전쟁 등으로 고평가 가능성 유념할 필요 - 블룸버그**
(Stocks Can't Wish 'Liberation Day' Tariffs Away)
- **미국의 주지방 정부,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 등으로 재정 위기에 직면할 우려 - 블룸버그**
(States, Cities Face Funding Collapse Threat With Trump Cuts)
- **미국 달러화 패권 약화 속 유로화의 국제화, 금융시스템 회복력이 관건 - Financial Times**
(How Europe should respond to the erosion of the dollar's status)
-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경제 하방 위험 증가로 큰 폭 금리인하 필요 - 블룸버그**
(Bank of England Can Get Ahead of the Curve With Half-Point Cut)
- **대만궤 캐리트레이드 청산, 미국 달러화 패권 약화의 초기 징후일 소지 - 블룸버그**
(Taiwan's Carry Trade Blowup Means Bigger Dollar Troubl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